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2월 18일 (제1241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할 수 있다!

토끼가 호랑이를 만났다. 100% 죽을 운명이다. 그런데 토끼가 기지를 발휘한다. “잠깐! 너, 나를 건드리면 안 좋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산중의 왕자야! 안 믿는 모양인데, 내가 직접 보여줄게. 아무래도 내가 달리는 것보다 네가 달리는 것이 빠르니까 네 등에 타고 이 산을 한 바퀴 돌아보자.”

어차피 잡아놓은 고기다 싶은 호랑이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달려보는데, 이게 웬일인가! 정말 산중의 모든 동물들이 토끼를 보고 다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한 바퀴를 돈 토끼가 등에서 내리면서 “봤지? 다들 도망치는 거?” 했다. 호랑이는 정말 토끼가 왕자라 생각하여 슬슬 뒷걸음질 쳐서 도망했다. 사실 토끼 때문이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동물들이 도망친 건데.

맞다. 개미도 명미를 타면 천 리를 달릴 수 있고, 파리도 독수리 등에 타면 창공을 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등에 탔던 롯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등에서 내리자 어찌 되었는가? 나오미 등에 올라탄 며느리 룯도 생각해보자.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6:9~10)라고 고백했다. 비록 우리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 업히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4:13).

오래전에 미국의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미국 명예시민권을 건네며, ‘미국을 얻어야 세계를 공략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세계를 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목회 40년을 지나고 보니 내 말이 정확히 맞았다.

하나님께 업혀라. 하나님께 업히는 방법은 온전히 성령충만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하나가 되니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또다시 2024년을 성령으로 불태워보자

지난 주일, 2010년 베네수엘라(Venezuela)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다. 그 후 14년 동안 여러 번 본 영상이지만, 볼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한다. 특히 목사님이 등단하시고 간단히 복음을 전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며 떠나가는 장면은 예수께서 성경에 표현하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라는 말씀이 그대로 체현되는 느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보여주는데 이만한 장면 이상이 또 있을까 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또

7월 첫 주
7. 몽골 체육관집회 8월 첫 주
8. 코스타리카집회 11월 첫 주
9. 우크라이나집회는 종전 후 바로 진행할 예정
베네수엘라의 루이스(Luis) 목사는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살려달라며 집회를 요청해왔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다가 이번에 7월 첫 주로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2010년처럼 대형체육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고 집회 또한 이어질 것이다. 누군가 불이 붙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길을 타고 번져나간다. 작은 불은 쉽게 역풍에 꺼져버리지만, 불들이 모여 큰불로 번지면 들불처럼 번져 온 산을 태우듯 지구촌

회를 필생의 역작으로 남기고 가겠다는 종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6월 6일 전주체육관집회를 배설한 박정직 목사님도 체육관 사전답사 차 방문했을 때 그러한 각오를 밝혔었다. 목사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부터 강원, 경기 북부지역까지 그러한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가길 바라신다.

목사님이 일본 순교지에서 교단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언급하셨듯이, 우리 모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2024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때를



2010 베네수엘라 세계 목회자 세미나(카라카스) 광경

이러한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며 2024년을 성령으로 불태우기 원한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을 다시 던지려 한다.

목사님은 주일 광고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될 집회 일정을 선포하셨다.
1. 교단 목회자 세미나 2/26(월)~28(수)
2. 파라과이, 우루과이집회 4월 첫 주
3. 춘계산상집회 4/22(월)~4/25(목)
4.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올림픽공원 5/15(수)
5. 전주실내체육관집회 6/6(목)
6. 베네수엘라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또 다른 복음의 불씨를 계속 만들어가게 된다. 코로나 이전 우리가 지속해온 세계선교 사역을 보면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항상 꼭 기도하시는 바가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복음의 문이 다른 도시로 계속 열려가기를 항상 꼭 기도하신다. 멕시코(Mexico) 60여 개 도시에 복음을 전한 역사가 바로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다. 이제 2월 말 교단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교단 전체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길 원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도집

얻든지 못 얻든지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 알기에 목사님은 또 한 해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지도에 따라 달려가시려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가든지 못 가든지 목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특히 올해는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목회 40년에 이른 목사님에게,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목사님과 함께해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주시리라 확신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2024 교단 목회자 세미나

2월 26일(월)~28일(수)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0:13~15)

우리, 예수 바람 일으켜보자

제가 목회자 세미나나 전도집회를 진행할 때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이 세미나는, 이 집회는 성공한 것이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비효과를 아십니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예측 불가한 거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전도 역시 나비효과가 작용했고,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하기 시작한 복음은 12 제자를 만들어냈고, 70인의 제자, 나아가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전도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전도의 나비효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라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탈옥했다고 여겨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며 그를 만류합니다. 이를 통해 간수는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통해 그의 가족과 친지가 구원을 받고, 그 바람에 그 바람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행16:30~32).

요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으러 나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남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워도 채워지지 않던 삶의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진정 목마르지 않는 물,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그녀는 전혀 왕래가 없던 마을로 나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과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요4:28~30).

그녀가 외치는 소리에 누군가는 ‘웃기고 있네. 네 주제에?’ 하며 콧방귀를 뀌을 수

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저런 여자가 변했지?’ 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다시 이 여인처럼 나가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비효과입니다. 누군가 외쳤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가 나타났고, 누군가 전했기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성자가 있었고, 누군가의 전도로 웨슬러가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인해 수없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한 사람의 날갯짓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날갯짓으로 인해 이초석 목사가 나온 것이고, 변화된 이초석 한 사람

으로 인해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날갯짓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 날개가 시원찮은 것 같아도, 누군가를 날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사십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하고 외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인 니느웨로 가는 대신 서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잔악무도한 앗수르인들이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으셨고, 그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라 삼일길은 외쳐야 했었지만, 요나는 겨우 하룻길만 외친 것입니다. 억지로 했으니 목청인들 높였겠습니까? 분명 모기만 한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커서 요나의 소리에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굶

은 배로 몸을 돌리고 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욥3:1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비의 날개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과 능력으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

다. 다만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여파로 어떤 것이 자국을 받고, 그 자국은 더 큰 자국을 낳아 태풍

처럼 큰 효과를 내게 되어 마침내 만민에게 복음

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지속되다가 바울 같은 자, 베드로 같은 자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전했을 뿐인데, 나는 내 친구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날갯짓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 다시 뛰려고 합니다. 대집회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에 겨운 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

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마13:31~33).

불면 날아가버릴 정도인 겨자씨가 자라 공중의 새가 깃들만한 큰 나무가 되듯, 별거 아닌 듯한 당신의 전도가 자라 나중에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늘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먹의 누룩이 나중에 서말이나 되는 떡을 만들 듯 여러분의 작은 전도로 배고픈 많은 영혼이 진리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개천이 되고, 그것이 계속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전도가 결국 땅끝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어야 우물물이 길어지듯, 여러분의 전도가 복음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중물이 엄청난 나비효과를 낳으니까요.

날개가 있다고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쓰지 않으면 날개는 도태됩니다. 전도의 날개도 써야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날갯짓을 하면 근력이 생겨 태평양 정도는 가볍게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할 것이다 생각 말고 내가 먼저 전도하자

우리, 예수 바람을 일으켜봅시다. 당신의 날갯짓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날갯짓으로 토네이도보다 강한 예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롬10:13~15).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을 당신이 날라보십시오. 나비의 날개에 묻은 암술 수술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듯, 당신의 전도로 아름다운 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당신의 작은 날갯짓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힘 빼기

명절 기간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다. 요즘 테니스에 빠져있었다. 그전에 3개월 정도 골프레슨도 받고 연습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어쨌든 너무 아프고 별다른 진보가 보이지 않아 테니스로 돌아왔는데, 이 역시 어깨에 자주 힘이 들어가 생각만큼 잘 안 된다. 골프레슨 받을 때 티칭프로가 힘이 너무 들어간다고 늘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더라 한숨이다.

사실 완력을 써야 하는 운동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스포츠, 특히 공을 다루는 스포츠는 유연한 허리 회전이 가능하도록 근육의 긴장, 곧 힘을 빼라고 강조한다. 특히 골프는 힘이 빠져야 스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수영을 배울 때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 늘어질 정도가 되면 저절로 물에 뜬다. 힘을 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힘이라는 것이 결국 내 생각에 따른 것이다. 내가 하려는 생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연약한 자기 논리로 움직이는 알은 처방과도 같다. 그걸 고집하면 절대 진보는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듯싶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앞서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다. 하나님은 기력이 팔팔했던 40대의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한 80의 노인네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나마 못하겠

다고 손사래 치는 노인네를 떠밀다시피 애굽으로 보내셨다. 기력도 다 빠지고 뭘 해보려는 의욕조차 없던 80의 노인네, 그렇게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내 생각, 내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빈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만들어지는가 보다. 목사님의 해외선교 사역을 보아도 그렇다. 가까운 동아시아지역 정도야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남미 같은 지구 반대편의 먼 지역을 다니는 일은 정말 엄청난 체력을 요한다. 장시간의 비행이나 시차를 극복하는 일이 실상 현지에 도착해서 진행하는 일보다 더 부대끼는 일이다. 그런데 목사님의 해외선교 사역은 50대 때부터 진행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연세도 참 젊었다 싶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워낙 힘든 여정이었기에, ‘하나님도 참, 팔팔하시던 40대에 보내시지 왜 한해 한해 달라지는 연세에 그 먼 나라로 보내실까?’ 하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종들을 보니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풀어가야 할 저간의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다.

힘을 빼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나의 그릇을 비우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실 수 있도록, 나를 당신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말씀하시듯,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이다.

Henry Han

성극 <조선의 바울, 이기풍>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는 최근 ‘조선의 바울, 이기풍’이라는 작품으로 드라마예배를 드렸다. 조선인 최초로 안수를 받은 목사 7인(김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7인 중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은 첫 제주도 선교사이기도 하다.) 가운데 일제 강점기 다른 순교자(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기풍 목사님을 극으로 만들게 된 데에는 총회장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의 화심과 드라마틱한 삶은 가히 총회장 목사님께서 극찬하실 만하였다.

조선후기 양반으로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이기풍은 동네 건달로 사납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 1885년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평양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고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위정척사 등으로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서양 선교사 마뎀(이후 마포삼열)을 싫어하던 이기풍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다짜고짜 박치기를 가한다. 이후로도 교회에 불을 내기도 하고, 선교사의 얼굴에 돌을 던지는 악행을 일삼는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 “기풍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

이 될 것이다.” 이후 이기풍은 변화되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07년 한국 교회 최초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게 된다. ‘평양의 박치기’ 강패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다. 이후 아무도 가지 않는 선교지였던 제주도에 가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의 갖은 핍박과 죽을 고비에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였다.

이 드라마예배를 통해 청년들은 작금의 자유로운 복음이 많은 목사,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공연 당일에는 많은 새신자들이 드라마예배에 참석하여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기쁜 일도 있었다. 2024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고 광고해야 한다. 할렐루야!

송현해 생도



:: 생명의 말씀 ::

진실로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

중국 어느 한족 부부가 소수 민족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소수 민족을 착취하고 괴롭힌 것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강도가 들어닥쳐 물건을 다 훔쳐가고, 집에 있던 딸에게도 크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는 취조하고 처벌받게 하겠지.’라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부부는 여전히 그들을 대했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 부부의 진실된 마음이 전해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시56:1).

어느 날, 큰아이가 감기 기운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한창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하던 중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을 지어 먹였다. 기도하고 아이에게 약을 먹였지만,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은 빠진 형식적인 말과 기도임을 나 자신은 알았다. 이제는 나를 법도 하건만, 약을 다 먹는 날까지 아이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으로 누워있을 때 찾아가 손잡아주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났다는 말씀이 떠올랐다(막1:31). ‘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는 그날 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는 간절히 기도드렸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잡아 일으켜주시면 저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까지 일상생활도 힘들었던 아이가 뒷날 아침 일찍부터 활동하며 ‘엄마, 저 다 나서서 오늘은 학교 갈 수 있어요!’라며 씩씩하게 말한다.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믿음은 빠진 채, ‘약을 먹었으니 당연히 낫겠지.’ 했던 나의 안일했던 중심을 돌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이 일은 나도 모르게 식어진 믿음의 불이 다시금 힘있게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 통한다’, ‘나에게는 정직하고 남에게는 진실하라’고 가르치신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지, 또한 나 자신에게 정직한지 점검하자. 진실로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진실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는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즐거운 여행을 할 때, 운동할 때, 자신이 원하던 차나 집을 샀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번다. 하지만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계속 행복할 수 없고, 원하던 것을 이뤄도 또 다른 문제로 완전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 오직 보이는 것(現象界)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靈界) 것은 무시하고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삶이다.

한국인 응답자 1.1%만 부유층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러면 나머지 98.9%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살아 가고 있다. 사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비교하게 되면 결국 불행하게 된다. 지난 2011년,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 1위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 95위로 하락했다고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잘사는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삶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이

제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되면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면 더 이상의 행복은 없어진다. 고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여행 사진, 행복해 보이는 표정, 명품 사진, 부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비싸고 고급진 음식들, 좋은 모습만 올라온다. 실상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 것. 따라 하려다가 가량이 찢어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시편 1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 안에 ‘소유’는 하나도 없다. ‘어떤 상태’란 명시돼 있을 뿐이다. 상태의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만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계를 보며 모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했으면 한다.

임택함 목사

:: 성도간중 ::

:: 신앙에세이 ::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2021년 1월 23일 오후 3시경, 저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 전기공사 중 4층 드럼통에 감긴 굵은 전기선에 휘감겨 왼쪽 정강이뼈가 완전히 골절, 의식을 잃고 떨어져 119구급차를 타고 부산 부민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의식을 찾아 제일 먼저 한 것이 총회장 목사님께 전화로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 후 가족으로부터 간병 및 간호를 받아야 해서 이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다친 부위가 허벅지보다 더 통통 부어서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받기 전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골절되면서 뼈가 조각이 나서 수술 후 다리 길이가 다를 수 있고, 또한 부작용

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사인한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4시간 후 마취에서 깨어나 병실로 돌아온 후 총회장 목사님의 2차 안수기도와 이시대 담임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통증이 심해 계속 무통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수요일에와 주일예배는 인터넷 영상예배로 꼭 드렸습니다. 2021년 5월, 퇴원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 의식을 잃고 떨어지면서도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않게 천사가 받쳐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둘, 완전 골절이 되어 떨어졌음에도 신경이나 인대, 주요 혈관은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 서울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통증과 싸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넷, 총회장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최고의 수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다리가 짹짹이 되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더욱 튼튼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빠른 쾌유와 재활 치료의 성공을 바라며 기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

님, 권사님, 그리고 빅토리 성가대원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곱, 걱정하고 애가 탔을 가족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며, 특히 보호자로 수술실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와 병원을 옮긴 후 아침저녁으로 맞난 반찬과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덟, 소천하신 어머님께서 2004년 즈음 예수중심교회(양천교구) 노방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시고, 밤낮 기도로 가족의 구원을 바라신바, 저 또한 2006년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빅토리 성가대 총무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 세 자녀(초등, 중등, 고등) 모두 주님 품 안에서 잘 성장하여 성가대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열, 2022년 4월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미치고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가 되고, 2024년 4월에는 장로로 세워주셔서 사명감으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사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록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곽요한 장로

:: 동행하는 삶 ::

세 겹줄 성경통독

작년 11월. 어느덧 2023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흥칫 놀랐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사복음서를 통독하기로 했다. 우리 교회 청장년부 JJ팀(저스트지저스팀) 자매들과 함께 읽기 시작하여 하루에 3장씩 읽고 12월 중순쯤 사복음서 통독을 완료했다. 다들 육아에, 살림에, 워킹맘도 있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함께 읽어나가다 보니 읽을 수 있었고 잠깐 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카톡 메시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를 보며 우선으로 성경을 먼저 읽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말씀에 은혜와 함께 마음에 뿌듯함도 있었고 내년에는 꼭 성경통독을 해보자며 다들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었다. 성경을 같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보고 나서다. 조혜련 집사님은 자신을 성경 바람잡이라고 부르며 지금까지 성경통독을 100독 이상 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카톡 방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읽는 것이었고 2년 동안 20독을 했다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4년이 되었다. 약속한 대로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고 창

세기부터 시작하여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먼저 읽기로 하였다. 2024년에 성경통독을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하루에 5장씩 읽기로 하였다. 지금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함께 읽어서인지 은혜가 더욱 크다. 그중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 올라갈 때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바치라고 하시니 바치는 순종하는 마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느껴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매년 새해 다짐 첫 번째가 성경통독이었으나 끝까지 완독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혼자 하다 보니 하다가 말게 되고 마음만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읽으니 할 수 있는 것 같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혼자 읽으니 지치고, 하다 말고, 끝까지 할 수 없었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할 수 있었다. 역시 세 겹줄은 강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다. 믿음 안에서 서로 독려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지난 청장년부 예배 시간에 이 시대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중 예배, 기도, 찬양, 봉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셨다. 예수 안에서 평안과 행복,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셨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믿음 혹은 착각

어릴 적 어머니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동생이 죽다가 살아나고, 열등생이었던 내가 해외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나의 믿음이 상했던 적도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거절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던 나의 나태한 착각도 있었다. 하나님은 흥해도 가르시지만, 내 삶 속에 흥해가 매일 갈라지는 건 아니었다. 한 책을 읽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 그 시작은 수입의 10%를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언젠가부터 믿음이라 말하며 하루 아침의 기적만 무책임하게 바라게 된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루아침에 100억 자산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수입의 10%는 저축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건강 수치들이 바뀌진 않지만, 오늘 30분 운동은 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 창업 성공 사례를 공부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결혼할 수는 없어도 주변 이성과 대화해 볼 수는 있으며, 하루아침에 일류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오늘 해야 할 공부하는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영은 빌립을 순간적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내가 퇴근길에 집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믿음은 내가 움직이는 것에 있고, 착각은 무책임 혹은 나태함에 있다.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약 2:20).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